

육계
업계

NEWS

“수급조절이 담합이라니…” 육계업계 ‘1758억’ 과징금에 패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한 업체를 제외한 15개 업체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울퉁, 한강식품, 동우팜투데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개 업체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제재를 내린 근거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와 관련 업체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육계업계에선 지난 10년간 0.3%에 불과한 영업이익률(4개 상장사는 0.0002%)에 불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부당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런 업계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중엔 도산 위기에 직면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들이 10년간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닭고기 계열화 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닭고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경고한다. 더 나아가 소수 대형업체들의 시장지배력과 수입 닭고기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돼 닭고기 산업 자체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도 농축산물 특성 고려와 함께 산업 붕괴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지만 결국 공정위는 농업계 호소를 묵살했다.

<한국농어민신문>

AI 피해농가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피해 가금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 2가지로 가축입식자금 지원 사업은 AI 방역조치로 닭,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1회 사육 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 비용이 지원된다.

축종별 지원단가를 산출해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올해 재입식 허용일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AI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원료·가축 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영업 중단 기간 경영비를 고려해 산출하며,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융자를 실행하도록 추진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금 대출일부 2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관련업체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농식품부

NEWS!

농식품부

NEWS

HPAI ‘소강상태’…AI 특방기간 종료

AI 특별방역기간이 지난 2월 28일부로 종료됐지만, 방역당국은 기존 주요 방역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잦아들었지만 철새의 복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 들어 지난 2021년 11월 국내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AI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된 뒤 3월 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46건이다.

올겨울 들어 한 달 평균 10건 꼴로 발생(농가)하던 AI가 지난 2월 한달 동안만 15건이 발생하는 등 급격히 확산세가 커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지만, 2월 22일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 발생 이후 확연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이후 지난 4일 전남 고흥의 소규모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 이후 추가발생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까지로 설정이 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종료됐다.

한달여 기간 동안 AI 발생이 없는 일부 지자체는 사실상 AI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 야생조류에서는 산발적이지만 꾸준히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들의 복상이 많은 이달 말까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발령된 가축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며 위험관리가 필요한 산란계 밀집단지과 특별관리지역, 경기·충청·전북권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 체계 및 축산차량 철새 도래지 출입통제, 출하 전 정밀검사, 가금농장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주요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입식·출하 및 사육제한과 관련해서 5일내 출하하되 동별 출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고, 육계·오리의 경우 출하후 14일 이상 입식제한을 지속 적용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막바지인 만큼 고병원성 AI 일선 가금 농가들은 기존의 농장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엄 개최 결정



한국가금학회가 지난달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학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임원진 구성, 학회지 발간, 올해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봄, 가을에 학회 심포지엄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행사로 오는 5월 11일 대전에서 '코로나 이후 가금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 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송창선 한국가금학회장은 “학회지 발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의 분야 논문도 가금학회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한국
가금학회

NEWS !

다향

NEWS

헬시플레저 트렌드 겨냥 오븐통살오리바비큐 출시



다향이 40년 노하우가 담긴 국내산 훈제오리 프리미엄 신제품 ‘오븐통살오리바비큐’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다향은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겨냥해 이번에 ‘오븐통살오리바비큐’ 신제품을 출시했다. ‘다향 오븐통살오리바비큐’는 깨끗한 자연에서 먹고 자란 국내산 오리고기를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여기에 국내산 참나무만을 사용하는 훈연공법으로 기름기를 빼고 오리고기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살

렸다. 여기에 오리뼈를 모두 제거해 요리 또는 취식 시 편의성은 높이고 뒤따라오는 음식물 쓰레기 걱정도 줄였다.

‘다향 오븐통살오리바비큐’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슬라이스 되지 않은 제품이라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요리로 즐기기 적합하다. 취향과 활용도에 따라 밥반찬, 술안주, 캠핑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조리방법 또한 간편하다.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3분간 조리하면 가슴살의 담백함과 다리살의 쫄깃함, 고소한 껍질의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다향은 롯데슈퍼 강현준MD와 다양해지는 트렌드에 맞춰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이번 신제품 ‘다향 오븐통살오리바비큐’는 건강하면서도 맛있게 그리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며 오리의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즐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며, “다향과 롯데슈퍼의 노하우, 건강 그리고 맛이 담긴 제품으로 건강한 식탁 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로이슈>

훈제오리 등 카카오 특딜 할인 판매



농협목우촌(대표이사 표기환)이 '목우촌 브랜드데이'를 오픈해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딜 행사는 3월 23일 17시부터 26일 24시까지 4일 간 진행됐다.

목우촌 인기제품인 ▲오메가3 오리훈제슬라이스, ▲뽀로로 비엔나소시지, ▲통안심 바삭텐더스틱, ▲뚝심, ▲프라임 크리스피 핫도그 등 5개 제품에 대해 최대 39%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며, 뽀로로 비엔나소시지 4개 묶음 구매 시 프랑크소시지 증정, 통안심 바삭텐더스틱 구매 시 순살닭강정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목우촌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더욱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첫 구매 할인쿠폰부터 스토어 친구 할인쿠폰까지 다양한 추가 할인혜택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농협
목우촌

NEWS!